

광주 코로나 확진 2000명 돌파 '논스톱 확산'

신천지→방판→사랑제일→병원·교도소→요양시설→TCS·안디옥

93.6% 지역 감염·n차 속출·사망 20명... '방역 불복' 고발 잇따라

거리두기 25차례 단계조정·민생대책 12번... 26일부터 백신 접종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꼬박 1년하고 20일 만이다.

첫 돌이 지나지도 않은 갓난 아이에서 104세 어르신까지 확진됐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2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불복'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25차례, 민생안정 대책은 12차례 발표했다.

23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3일 첫 확진자 발생후 이날 오전까지 누적확진자는 2000명에 이

른다. 이 중 1873명, 비율로는 93.6%가 지역 내 감염이다. 해외유입은 127명에 불과하다.

확진자는 대유행 주기와 맞물려 증감을 반복했다. 지역내 유행은 신천지 발(發) 감염(2월3일~6월26일)을 시작으로, 방문판매업체발 감염(6월27일~8월11일), 서울사랑제일교회발 확산(8월12일~11월8일), 전남대병원·교도소 집단 감염(11월9일~12월18일), 요양시설 등 동시다발 감염(12월19일~1월22일), TCS국제학교·안디옥교회발 대규모 감염(1월23일~2월2일) 등 모두 6차례다.

감염경로는 효정요양병원 등 60여 개로, 요양병원·종교·교육·체육활동 관련 집단발병이 50%를 넘고, 명절을 전후로 타 시·도로부터의 감염사례도 30%에 육박한다. 관공서, 학교도 몸살을 앓았고, 유흥주점, 전통시장, 성인 오락실도 한 번 터지면 여지없이 집단 발병으로 이어졌다.

100번째 확진은 첫 확진후 다섯달이 지난 7월4일 발생했고, 이후 7월22일 200번, 8월26일 300번, 9월3일 400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500번은 10월16일 발생했다. 이후 12월25일 청사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번째를 찍었고,

새해 벽두 효정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발 확진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불과 한 달 만인 1월24일, 1500번째 환자가 나왔다.

이후 TCS국제학교와 안디옥교회발 확진자가 폭증하고 설 연휴 가족간 만남을 통한 감염이 더해지면서 누적확진자는 2월을 넘기기도 전에 '2000'을 돌파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8%(396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40대, 20대가 뒤를 이었다. 최고령 확진자는 104세, 최연소는 생후 7개월이다.

사망자는 20명으로, 3분의 2는 울들어 생을 등졌다. 효정요양병원 9명, 에버그린요양원 5명 등 요양시설이 '악한 고리'였다.

방역지침 위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내 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이 중 검사나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고발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다.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확진자 등 7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고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추가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송파60번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다. 시 방역당국은 25차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고, 12차례에 걸쳐 다양한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흘 앞둔 이날 실천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접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 반응에 대비해 핫라인 가동 상황까지 훈련과정에 포함시켰다.

병원과 요양시설 148곳의 일소자와 종사자 중 접종에 동의한 1만351명(94.5%)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경기자

광주 신축 공사장서 추락한 60대 목수 중상

23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 남구 행암동 한 노인 의료복지 시설 신축 공사장 2층에서 작업 중이던 목수 A(66)씨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건축물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동료들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홀로 사는 여성 뒤따라가 음란행위한 20대 영장

심야시간대 원룸에 홀로 사는 여성을 뒤따라 침입, 음란 행위를 한 20대 4명에게 불발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원룸 건물에 무단 침입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건조물 주거침입·공연음란)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15분께 광주 북구 모 원룸 건물 1층 복도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골목길을 서성이던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에 나온 여성을 뒤따라 건물 안에 무단 침입,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설 명절 연휴 다섯날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카메라 20여 곳의 영상을 확보, 행적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공포를 조성하는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피해 여성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치안 수요가 많은 1급 관서에 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여성강력팀)을 신설했다. 여성강력팀은 ▲아동학대 사건 ▲불특정 피의자 도주 강간·강제추행 ▲학교 주변 등 공연음란 ▲소재 불명 신상 대상자 추적 등을 도맡는다.

후임병들 강제추행하고 보복 폭행한 20대 집유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29일 사이 자신이 복무 중인 강원도 모 군부대 사위장 내 탈의실과 체력단련장에서 후임병 2명을 강제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29일 사이 후임병 1명이 상급자에게 추행 피해를 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 얼굴에 짐을 뺏거나 손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횡수, 추행 부위·정도, 피고인·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A씨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목포 주택서 불, 12분만에 진화...40대 여 2도 화상

23일 오전 8시2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내에 머물고 있던 A(46·여)씨가 얼굴·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주택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 코로나19 치료 중 사망 20명째...요양시설 관련 15명

'160여명 확진' 효정요양병원서 9명 숨져

광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져 사망자가 20명으로 늘었다.

23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광주1951번 확진자가 숨

졌다. 광주1951번 확진자는 지역 집단 감염지인 효정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이어 지난 20일 광주 지역 요양시설 확진자 전담치료시설인 해아림요양병원으로 전원 조

치됐으며 코로나19 치료를 받았다.

지병이 있었던 확진자는 증상이 악화돼 중증 치료가 가능한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로써 광주지역 코로나19 치료 중 사망은 지난해 7월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20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 5일 19번째 사망자가 나

은 이후 18일만이다.

시설별 사망자는 요양시설 관련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교회와 오피스텔, 병원 등의 확진자들이다.

광주지역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000명을 넘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junsol@junsol.com

준솔루션